미소원, 함께 웃는 세상 만들기 10년

11월 13일 개원 10주년 기념법회

나눔 · 상담 등 계층포교 10년
정각 스님 윤태원 공로상 수상
생명나눔실천 등에 포교지원금
"전법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11월 13일 부산 범일동 미소원 법당에서 '개원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함께 웃는 세상을 꿈꾸며 봉사와 나눔으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는 미소원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및 상담 그리고 기도 수행으로 정진하고 있으며, 계층포교를 위한 전법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눔과 수행, 포교 등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

개원 10주년을 맞아 미소원은 함께 활동해온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생명나눔실천운동본부 및 BBS불교방송 법소리에 포교지원금을 전달했다. 생명나눔실천운동본부에는 기금 1천67만4270원을 전달했으며 포교지원금 500만 원을 박종호 법소리 회장에게 후원했다. 이날 법회에서 미룡사 회주 정각 스님과 윤태연 미소원 고문이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정인하 · 윤경애 봉사팀장이 동구청장상을 받았다.



사단법인 미소원이 11월 13일 부산 범일동 미소원 법당에서 '개원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개회사 △회기입장 △삼귀의 △반야심경 △발원문 낭독 △미소원 경과보고 △공로상 수여 △동구청장상 수여 △기금전달식 △축사 △미소원 10년의 발자취 영상 시청 △10주년 케절단식 △인사말 △내빈소개 △공지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미룡사 회주 정각 스님과 대광명사 주지 목족 스님, 연종학림 청명 스님,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 장유정 이사장,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장유정 이사장은 "미소원은 정각 스님을 비롯해 목종 스님, 주석 스님, 법륜 스님 등 모든 스님들의 활동을 모범으로 삼아 따라왔다. 모범이 되어 주신 모든 스님들께 감사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있게 해준 원동력은 우리 회원들이다. 봉사 나눔을 실천했고 상담을 진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전법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각 스님은 "미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과 소외된 이웃을 찾아다니며 봉사하는 재가불교단체이다. 10년 동안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으로 활동해왔다"며 "아름다운 활동과 나눔을 높이 평가하며 불교재가자 단체 가운데 으뜸이라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미소원에서 환하게 미소 짓는 이 모든 분들의 밝은 기운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사단법인 미소원은 10년 동안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어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반찬을 만들어 부산 동구지역 소외 이웃을 직접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했으며, 명절음식 및 떡국떡, 강정 등 명절 음식을 지원했다. 또 복지관을 방문해 어버이날 재가 어르신을 위한 후원금과 음식을 전달하며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또 법무부 소속 구치소 교정활동을 위해서 불서 500여 권을 지원했으며 해외포교 및 구호활동을 위해 한국 JTS에 우물파기 및 결핵 환우 돕기 지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미소원 소속인 청년회는 희귀질환 장애아동 가정을 선정해 재활치료비를 후원했으며 아빠봉사단은 동구지역 취약계층을 방문해 전기와 수도, 누수, 외벽 수리 등 집고치기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인각대종사여! 속환사바하소서"

11월 15일, 인각 대종사 영결식 엄수

"크게 한번 죽으니 대활(大活)이 목전(目前)에 나타남이로다. 밝음과 어두움이 사라지니 홀로 법신(法身)이 드러남이여. 금정산 새벽하늘에 진적(眞寂)를 보이고 나 이제 떠나도다." -인각대종사 임종게.

11월 11일 원적에 든 범어사 수좌 금우당 인각 대종사의 영결식이 11월 15일 범어사 대웅전 앞에서 엄수됐다.〈사진〉



전국선원수좌회장으로 진행된 영결식에는 금정총림 방장 지유 스님, 장의위원장 무여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장의부위원장 영진 스님, 일오 스님과 문도를 대표해 수불 스님, 무관스님,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백종헌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영결식에서 방장 지유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인각 스님의 부고를 듣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대중은 '몸을 버리기 전에 무엇을 하고 떠날 것인가?' 를 다시 한 번 더 살펴야 한다"며 "자신의 본래면목을 알아 마음을 깨닫기 위해 정진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의위원장 무여 스님은 "금정총림의 수좌 인각 스님, 참선은 모든 경계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힘이라고 베풀어 보이시고, 화두참구는 목숨을 담보해야 한다는 말이 일전어(一轉語)가 되었다"며 "'화두를 들어라. 손 내밀면 산이 밀리고, 발 뻗으면 땅이 꺼진다'는 간명직절(簡明直截)의 법문을 온몸으로 설파하셨기에, 선문에는 언제나 화두참구의 간화경절(看話徑截)이 천고방양(千古榜樣)이 될 것이며, 초지일관(初志一貫)의 수행 풍모는 장군죽비가 되어 성성적적(星星寂寂) 할 것"이라고 추모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금우당 인각 대종사는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역임하시며 선풍을 진작하고 금어선원의 유나로 계시며 금정산을 찾아오는 수좌들을 제접하셨다"며 "푸른 선기가 빛나던 법체는 또렷하게 우리들의 기억에 남아 있고 그 빛은 저물지 않고 심인(心印)의 설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인각 대종사의 법구는 오색만장기가 이끄는 장의 행렬을 따라 영결식장에서 율원, 설법전을 지나 사천왕문, 일주문을 마지막으로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다비장에서 사부대중은 흐느끼며 "큰 스님 불 들어갑니다"고 소리치며 속환사바할 것을 기원했고 인각 대종사의 법구는 적멸의 가르침을 일러주듯 금정산 아래 널리 흩어졌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복합문화공간 쿠무다' 신축 개관

12월 9일 오후 2시 개원식 개최
현대 필요한 불교문화 포교공간

복합문화공간 쿠무다(이하 쿠무다)가 12월 9일 신축 개원식을 개최하고 정식으로 대중과 만난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는 11월 15일 쿠무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쿠무다 개원 및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불교의 종교적 역할과 사회적 문화 역할을 어떻게 엮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 시작으로 복합문화공간 쿠무다가 만들어진 것이다"며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내실을 다지느냐다. 불교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현대사에 필요한 문화 포교가 어떤 것인지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정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축한 복합문화공간 쿠무다 전경.

신축 쿠무다는 지하 2층과 8층 건물 그리고 하늘정원이 있는 옥상을 포함해 총 11층이며 대지면적 594㎡(180평), 연면적 2970㎡(900평) 규모이다. 모든 층에서 부산 바다 송정을 조망 할 수 있으며 불교와 현대 문화예술의 만남을 표현했다. 특히 서칠교 작가, 오채현 작가 등 이 시대 대표 작가들이 표현한 불보살의 세계를 담았다.

주석 스님은 "불교 문화 콘텐츠를 만들면서 저희가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숙박과 음식 그리고 공연을 접목한 컬쳐스테이와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에서 시대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연구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 포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무다 개원식은 12월 9일 오후 2시 콘서트홀 지하 1층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제방의 대덕 스님을 초청해 봉행한다. 1부 개원식에 이어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문화공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복장식과 점안식은 12월 7일 오후 2시와 12월 8일 오전 10시 해인사 무관 스님의 증명으로 진행된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통영불교사암聯, 겨울나기 자비나눔

10일, 26가구 난방유 등 전달

통영불교사암연합회(회장 종묵)가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통영시 명정동 일대에서 겨울나기 자비나눔을 진행했다.

나누우리봉사단과 통영불교거사림이 공동주최한 이번 자비 나눔은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발원하며 개최됐다. 통영사암연합회 회장 용화사 종묵 스님, 보현사 묵원 스님, 연화사 도법 스님 등 동참 사부대중은 명정동주민센터와 지원 가정을 직접 방문해 난방유와 간편식을 전달했다. 지원가구는 총 26가구이며 속옷, 화장지, 라면과 즉석 곰탕 등 간편식 세트, 난방유 총 4200리터와 연탄 1000장이 전달됐다. 또 기름보일러 교체작업도 진행됐다.



종묵 스님은 "어려운 시절이지만 스님들과 불자들이 빠짐없이 일심으로 동참했다"며 "이 지역에서 살아가며 조금이나마 공동체 된 마음으로 십시일반 지역민들에게 나누고 회향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법화경〉 독송 입재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 이하 부산지역단)이 11월 15일 부산포교사단 사무실에서 '법화경 독송 동안거 입재식'을 봉행했다.

부산지역단은 코로나 기간 동안 안거를 맞아 〈금강경〉과 〈법화경〉 등 경전을 독송하며 수행정진을 이어왔다. 회향 때마다 선방을 방문해 대중공양을 올렸고 기도 기간 모금한 보시금은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회향했다.

이번 동안거 기간에는 70일 동안 〈법화경〉 10권을 독송한다. 이번 동안거 〈법화경〉 독송에는 부산지역단 40개 팀 표교사단 650명이 전원 동참해 릴레이로 독송을 이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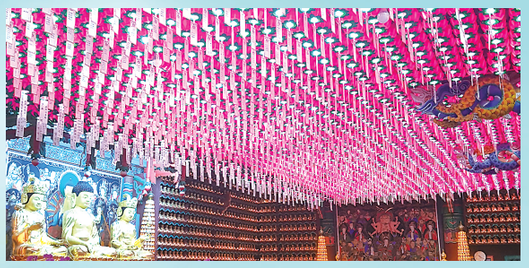
정분남 단장은 "11대 단장 직의 마지막을 수행으로 장식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 수행은 11대에서 시작해 송재린 12대 차기단장이 취임한 후 회향하게 된다"며 "진실한 불자는 신행과 전법이 우선이다. 많은 대중과 함께 신행을 하면 저절로 환희심이 가득하다. 〈법화경〉 독송 기간 동안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지역단은 11월 27일 개금복지관을 통하여 불우이웃돕기 연탄나눔을 진행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